SmArt 동강대학교
나를 뛰어넘다
http://www.dkc.ac.kr 062-520-2555 SMART 동강대학교

광주 1/12℃ 목포 0/10℃ 여수 1/11℃

光州日報

kwangju.co.kr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제19195호 1판 2012년 3월 26일 월요일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단기 4345년 (음력 3월 5일)

84명 등록 4.42대1…19% 軍미필

4·11 선택 D-16

여수갑 9명 최고경쟁…21.4% 전과

여성 7.1% 불과, 무소속 역대최다

광주·전남 입후보자 분석

오는 4월11일 치러지는 제19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광주에서 35명, 전남에서 49명 등 모두 84명이 등록해 4.4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25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23일 양일간 총선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주에서는 동구 8명, 서구갑 6명, 서구을 5명, 남구 3명, 북구갑 4명, 북구을 4명, 광산구갑 3명, 광산구을 2명 등 모두 35명이 등록을 마쳤다. 광주지역 경쟁률은 4.38대 1이었다.

민주통합당이 경선 과정에서 '투신자살 사태'를 이유로 공천자를 내지 않은 광주 동구에는 8명의 후보가 등록해 광주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에서는 여수갑 9명, 해남·완도·진도 6명, 고흥·보성과 장흥·강진·영암 각 5명, 목포와 여수을, 나주·화순, 광양·구례 각 4명, 순천·곡성과 담양·함평·영광·장성 각 3명, 무안·신안 2명 등 모두 49명이 등록, 경쟁률이 4.45대 1이었다.

특히 9명이 등록한 여수갑은 광주·전남 19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자 중에는 전과자와 군 미필자가 수두룩했다. 전과자는 광주 7명, 전남 11명 등 총 18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21.4%를 차지했으며 군 미필자도 15명(19.2%)이나 됐다. 지난 5년 동안 체납전력이 있는 후보자도 4명(4.8%)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이 무공천지역인 광주 동구와 야권연대지역인 광주 서구을을 제외하고 17개 선거구에 후보를 냈고, 통합진보당은 광주 8곳, 전남 7곳 등 15곳, 새누리당은 광주 2곳, 전남 8곳 등 10곳에 후보 등록을 했다.

특히 어느 선거 때보다 심각했던 민주통합당의 공천잡음을 반영하듯 무소속 후보가 광주 15명, 전남 21명 등 총 36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여성후보는 광주 4명, 전남 2명 등 총 6명에 그쳐 전체 후보자 84명의 7.1%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 이번 선거에는 총 19개 정당이 927명의 후보자를 내 경쟁률은 3.76대 1을 기록했다. 새누리당이 230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냈고, 민주통합당 210명, 통합진보당 55명, 자유선진당 52명, 정통민주당 32명, 진보신당 23명, 국민행복당 22명, 국민생각 20명 등의 순이었다. 무소속 후보는 257명이었다.

선거구별 경쟁률은 서울 종로구가 10대 1을 기록해 최고를 기록했다.

한편,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여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오는 2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입후보자 명단·관련기사 2·3·4·5·6·7면

DMZ 찾은 오바마 2012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방한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해 오피오울렛에서 망원경으로 북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때문에… 度 넘은 단체장 선거개입

유태명청장 구속, 광산구·고흥 고발·수사

단체장·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선거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직 구청장이 사조직을 동원, 특정후보를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가 하면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선거운동에 관여하다 검찰에 고발되거나 잇따라 경고조치를 받아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은 특정후보 지지를 통해 2년 후 치러지는 단체장 선거에서 또 한 번의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 아래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으로 이어지는 '일당 독점' 정치지형도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지역정가에서 제기됐던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지난 23일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을 앞두고 유사기관 설치를 지시하고 금품을 제공한 유태명 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청장은 크게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부터 박주선 의원이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계림1동과 지원2동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했고,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모바일 선거인단 1200명을 확보할 목적으로 대책위원 12명을 모집했다. 또 여기에 개입한 관계자들에게 현금 400만원과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로 민주통합당이 새롭게 도입한 모바일 국민경선의 부작용이 심각했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구청장이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광주 광산구 선관위는 지난 19일 번개모임 등을 통해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연두순시와 구청 발행 소식지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업적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구청 소식지 동정란 등에 지역구 국회의원 업적을 홍보한 공무원 A씨도 함께 고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민주통합당 고흥·보성 경선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불법 동원 경선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경선 선거인단 명부 등을 확보해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김일태 영암군수가 황주홍 전 강진군수 출판기념회에 참석, 황 전 군수를 지지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정치적 중립 요청을 받기도 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시·군·구의원) 공천권을 행사하는 구조적 문제가 선거개입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운태 39억 박준영 24억원

광역단체장중 나란히 1, 2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배용태 112억 전국 4위

지난해 강운태 광주시장의 재산은 20억7000여만원 그리고 박준영 전남지사는 4억9000여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고위공직자들의 2012년도 재산변동 명세에 따르면, 강 시장은 39억9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7400만원이 증가했다. 박 지사는 24억2700만원으로 4억9800만원이 늘었다. 강 시장과 박 지사는 재산 총액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강 시장은 배우자 명의의 현금 12억2000여만원과 예금 7억7000여만원 등을 추가 신고했고, 박 지사는 장녀 소유 오피스텔 등 재산을 신규 등록한 데 따른 재산 증가라고 각각 설명했다.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112억여원을 신고해 재산이 공개된 전국 고위 공직자 중 4위, 그리고 광주·전남지역 고위 공직자 중 1위를 차지했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보다 6560만원 늘어난 3억4459만원,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채무 변제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1억3000여만원이 감소한 25억여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각각 3억6000여만원과 4억7000여만원을 신고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이정희 후보사퇴 야권연대 정상화

서울 관악 을 야권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조작 논란으로 위기를 겪었던 야권연대가 지난 23일 논란의 당사자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다시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23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단일화 경선 논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서울 관악 을 후보에서 사퇴했다.

이에 민주통합당도 여론조사 표본 오류를 주장하며 재공천했던 경기 안산 단원갑의 백혜련 후보의 사퇴를 이끌어 내며 화답했다.

후보단일화 논란을 매듭지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25일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한명숙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문성근·박영선·박지원·이인영·김부겸 최고위원이, 통합진보당에서 이정희·유시민·심상정·조준호 공동대표가 맡았다. /임동욱기자 tuim@

本社人事

▲李承培 광고마케팅국장
〈3월 26일자〉

우체국은 대한민국의 힘!
전남우체국은 전남의 힘!

KOREA POST 전남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jn/

"편지는 사랑이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을 기원합니다.
사랑을 담는 예쁜 우편함 사진 CONTEST 개최

참 가 자 격 | 전 국민 누구나
접 수 기 간 | 2012. 3. 12(월) ~ 4. 10(화)
접 수 처 | 광주·전남 소재 우체국 또는 E-Mail : omestone@mke.go.kr
제 출 양 식 |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 참조
입상작 발표 | 2012. 4. 20.(금)
후 원 | 광주일보사 ·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시상내용(상금/표창)
대 상 | 50만원(1명), 우정사업본부장
금 상 | 30만원(2명), 우정사업본부장
동 상 | 15만원(2명), 전남지방우정청장
은 상 | 20만원(2명), 전남지방우정청장
입 선 | 10만원(5명), 전남지방우정청장

유의사항
응모자는 작품 제출 전 저작권 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하며, 응모된 모든 작품은 전남지방우정청의 공익목적 활동(전시, 홍보업무 등) 및 기타 모든 활동에 활용
• 입상작의 저작권 등 모든 권한은 전남지방우정청에 귀속

문의 : 전남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 (☎ 062-600-4655, Fax 062-600-4659)